

주요소식

PSA 선보아카데미

선보 글로벌 리더십 차·부장 교육 실시

지난 3월 13일~14일 기장에 위치한 부산은행연수원에서 PSA 선보아카데미 '선보 글로벌 리더십'이 진행되었다. PSA 선보아카데미는 선보인에 대한 존중과 학습에 대한 열정을 배양한다는 이념 아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알찬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이번에 진행된 차·부장급 '선보 글로벌 리더십' 교육은 팀별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글로벌 감각 배양을 통한 회사의 경쟁력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작년에는 '유답', 올해는 '화답'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교육을 기획했다. '화답' 과정은 대인관계와 조직 및 사회 속에서의 조화성을 키우고, 조직 구성원이 서로 화합하여 새로운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첫째 날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 통(通)계인, 본질통찰 상황극 등 활동력이 높은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날에는 내부 강사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HSE 강의는 김상진 차장이 맡았고 품질 관련 강의는 최경호 부장이 맡았다. '경험해보지 않은 다양한 교육이 매우 흥미롭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 '소통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는데, 어렵지 않은 것임을 알았고 서툰지만 직원들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표현할 용기가 생겼다' 등 참가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1, 2차로 나눠서 교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률이 낮았지만 올해는 차·부장급 30명 전원이 교육에 참가하는 기록을 남겼다.

차·부장급 교육의 참석률이 높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바로 지난해 교육 이후 '차·부장' 모임을 결성했기 때문이다. '차·부장 모임' 밴드도 결성되어 서로 소통하고, 두 달에 한 번씩 모여 식사도 하고, 등산도 하며 회사의 고민을 함께 나눈다. 회사가 아닌 밖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PSA 선보아카데미의 주된 목표인 '소통'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다가오는 4월 25일에도 '차·부장 모임'이 예정되어 있는데, 선보를 이끌어가는 핵심인력 들인 차·부장들의 모임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지 회사 안팎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선보 글로벌 리더십 '차·부장급 교육'에 이어 선보 글로벌하모니 '대리~과장급 교육'이 4월 10일~11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되었다. 조직의 허리를 담당하는 대리~과장급 교육은 '글로벌 하모니'라는 타이틀처럼 조직생활의 매너리즘을 타파하고 차·부장급과 직원들의 중간 매개 역할을 통해 조직의 화합, 하모니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육이 구성되었다. 다가오는 5월 15일~16일은 선보 글로벌 챌린지 사원~계장급 교육이 계획되어 있다.



최금식 대표이사 기능경기대회 기술위원장 위촉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이사는 작년에 이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기능경기대회의 기술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지난 4월 8일부터 시작해 6일 동안 개최된 기능경기대회는 지역 숙련기술인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는 대회로 숙련기술 개발과 보급, 지역 간 숙련기술 수준의 상향평준화와 숙련기술 존중 풍토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능경기대회 기술위원장인 최금식 대표이사는 꾸준한 활동으로 그간 부산 지역 기능인력 육성 및 기술자변 확대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힘써왔다. 기능경기대회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입상자들은 기업체 채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사하구청 공동 주관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지난 4월 22일 사하구 신평2동 주민센터 2층에서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회장: 최금식 대표이사)와 사하구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설명회는 사하지역 내에 있는 회사들이 정부 시책 및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자리였다.

좋은 정책에 대한 활용방안을 얻고자 사하구 내 15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는 사하구발전협의회를 주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하여 부산·울산 중소기업청, 부산고용노동청 등 총 6개 기관이 함께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하구지역발전협의회는 향후 협의를 통해 설명회를 매년 개최해 지역 기업들의 동반성장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납품소식

Calorifier packages (E. P. C 프로젝트)

높은 품질력과 신뢰라는 영업력으로

Calorifier Packages를 성공적으로 납품완료해

해양플랜트 사업분야에서 우리 회사만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된 쾌거를 이루었다

우리 회사는 지난 4월 13일 삼성중공업 Ichthys CPF(호주 해양가스 생산설비)프로젝트 Calorifier Packages를 최종 납품 완료 했다. Ichthys CPF 프로젝트는 삼성중공업에서 우리 회사에 직접 발주한 프로젝트로 작년 2월부터 작업을 시작해 4월 9일 마지막 검사를 완료하고 지난 4월 13일 최종 납품을 완료할 수 있었다.

Ichthys CPF 프로젝트는 해양플랜트 중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다른 프로젝트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며 또한 40년의 사용기한이 보장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문서만 130개가 넘는 등 고품질을 요하는 프로젝트이다. Calorifier Packages는 온수 가열기로 각 선박의 환경 조건에 맞게 설계되며, 용량별로 온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여 식수 등의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선박에는 필수적인 설비이다.

Calorifier Packages는 높이 약 5M의 규모로 다대 2공장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다대2공장은 이러한 대규모의 작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작업시설을 갖추었다. 다대2공장 직원들은 "규모도 크고 어려운 작업이라 힘들었지만, 납품 완료 했을 때 뿌듯함은 더 컸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노하우를 쌓아가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라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소감을 전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작업에 값진 경험이 되었다고



01

입을 모았다.

Calorifier Packages는 작업 과정뿐만 아니라 검사 기준도 까다롭다. 다른 프로젝트처럼 기한을 정해두고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삼성중공업에서 우리 회사를 방문해 체크하며 작업상황을 조율하며 진행했다. Calorifier Packages는 까다롭고 어려운 프로젝트이지만 삼성중공업에서 우리 회사를 선택

한 데는 작년 5월 DSME(대우조선해양)의 FPSO 프로젝트를 우리 회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신뢰와 실력을 인정받았던 이유가 컸다. 높은 품질력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영업력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납품 또한 앞으로 해양플랜트 우리 회사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납품소식

LNG compressor package

납품 완료

우리 회사는 최근 조선-해양 업계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LNG선의 compressor package를 수주해

repair work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이는 TK 프로젝트로 현재 DSME(대우조선해양)의

H2407호선이 건조 중에 있다.

우리 회사는 지난 2월 23일 수주한 LNG compressor package를 4월 5일 최종 납품 완료했다. compressor package는 DSME(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인 H2407호선에 탑재될 예정이다.

원래 스위스 업체인 Burckhardt compression(BCAG)에서 compressor package를 이탈리아 업체에 발주했다. 하지만 DSME의 마지막 검사에서 잘못된 점(PUNCH)이 많이 발견되어 DSME는 우리 회사를 추천해 compressor package repair work를 요청했다. 우리 회사는 최종적으로 Burckhardt compression(BCAG)와 협의해서 compressor package repair work를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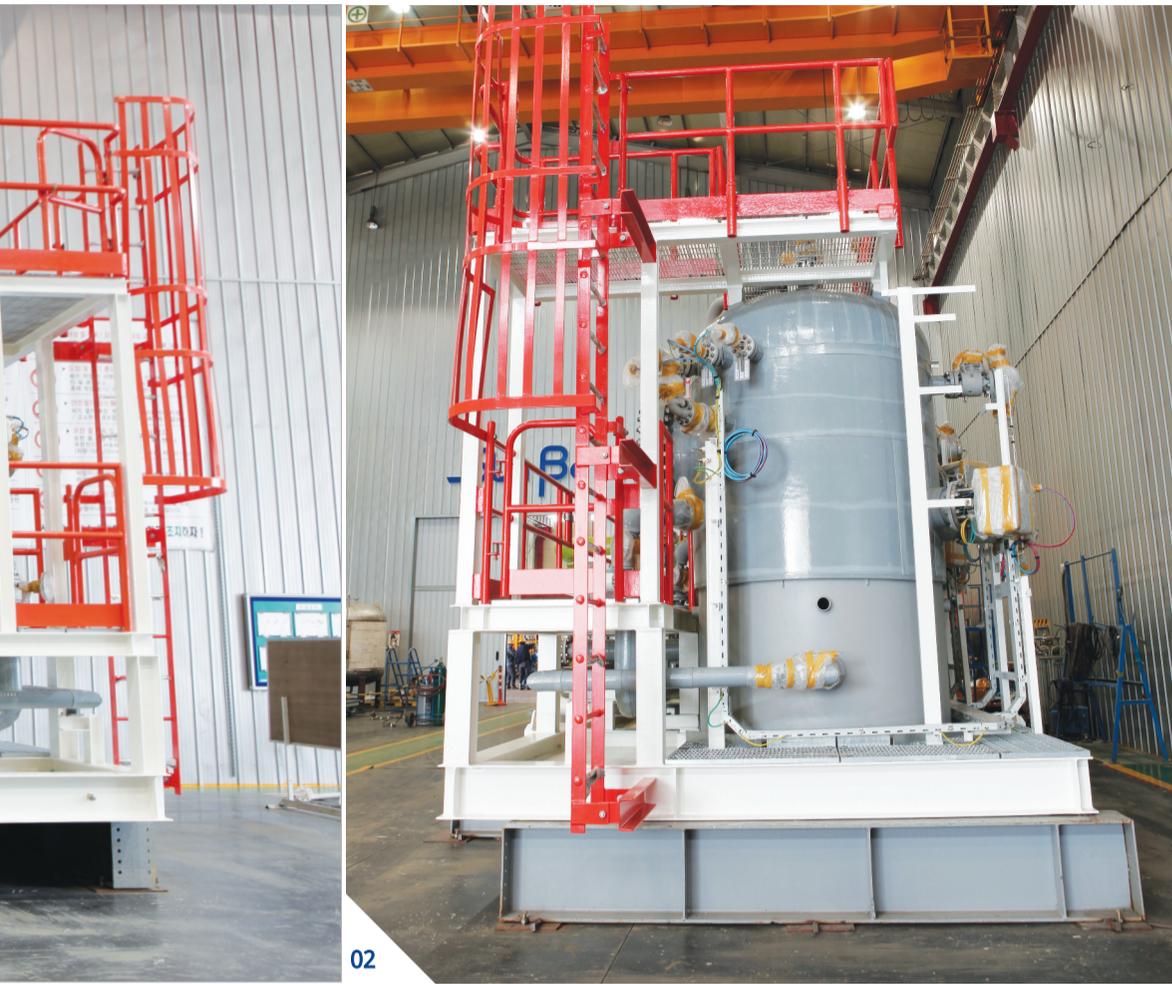
행하게 되었다. 우리 회사는 compressor package의 잘못된 점을 비롯해 추가 작업과 미설치 된 부분까지 완료해 납품을 마쳤다.

compressor package가 탑재되는 LNG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항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자연 기화되는데, 기화된 가스를 예전에는 버리기도 하고 발전기 원료로 쓰기도 했다. 최근에는 DSME에서 고압의 Natural Gas공급이 되어야 움직일 수 있는 MEGI엔진의 원료로 쓰일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했다. Natural Gas를 고압으로 MEGI엔진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compressor package이다. 이 기술로 인해서 기화된 가스를 버리지 않고 엔진 가동에 힘을 더할 수 있어 에너

지소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LNG선인 H2407은 최근 천연가스의 자연 손실을 방지하는 초기 투자비용과 유지관리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대기배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세계 조선업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이후 2419 FSRU호선의 compressor package도 수주해 3월 말부터 작업에 착수했다. 2419 FSRU호선 compressor package은 9월 16일 납품 예정이다. 우리 회사는 compressor package외에도 향후 전략적인 비즈니스로 미래의 먹거리를 계속해서 수주하여 많은 프로젝트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01 02
최종 납품 전인
Calorifier Packages의 모습



02

PSA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되는 'SunKey' 멘토링 결연식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SunKey' 멘토링 3기가 결연식을 가지고 활동에 돌입했다. SunKey 멘토링은 계장~과장급의 우수선배들과 신입사원을 1대 1로 이어주는 시스템이다. 멘토가 멘티에게 지식이나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고, 조언,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회사 생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신입사원이 새로운 조직에 잘 적응하고, 좋은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1,2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인해 3기부터는 활동비 금액이 상향되었다. 3기 멘토들은 사전 모임을 통해 어떻게 멘티들을 이끌어 갈 것인지 자발적으로 논의하는 등의 열의를 보였다. 지난 3월 19일에 열린 멘토링 결연식에서 최희승 차장을 비롯해 김덕현 과장, 정성욱 대리 등 총 9쌍의 멘토-멘티가 맺어졌다. 3기 SunKey 커플들은 1,2기와 마찬가지로 3개월 동안 활동기간을 가지고 매월 '멘토링활동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6월 18일 최종 평가해 수료식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멘토링 1기에서는 영암 설계팀 오충석 대리, 2기에는 생산관리 김유미 사원, 플랜트영업팀 이지영 차장, 설계 4팀 이현우 차장이 수상했다. 더욱 돈독한 멘토링 사이를 자랑하는 Sunkey 멘토 3기 커플들 중 어느 커플이 수상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H.S.E

DSME (대우조선해양)과 선주로부터 H.S.E 감사패 수여

우리 회사는 지난 4월 7일 DSME(대우조선해양) H.S.E 추진팀과 선주 측으로부터 H.S.E 감사패를 수상했다. 감사패는 구평 1공장에서 진행된 P6302 PFLNG 프로젝트(PETRONAS) 기간 중 1000만 시간 무재해 달성 기념으로 수상하게 된 것이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 2월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P6302 PFLNG 프로젝트 완료 시인 11월 말까지 열 달 동안 작은 안전사고 한 건 없이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했다. 1000만 시간 무재해 달성은 누구 한 명만 잘한다고 해서 이루어 낼 수 있는 성과가 아니며, 선보가족 모두가 작업에 집중하고 엄격한 안전기준을 지켰기에 가능한 일이라 의미가 더욱 크다. 이에 최금식 대표이사는 "1000만 시간 무재해는 전사적 차원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 온 우리 임직원 노력에 따른 결과"라며 "향후 프로젝트에서도 최고의 품질과 안전을 준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사적 무재해 사업장 조성 위해 H.S.E 경쟁력 강화 발대식

우리 회사는 지난 4월 1일 전사 H.S.E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발대식은 전사적 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각 공장 별 안전보건관리 조직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2015년도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H.S.E 환경도 변화했다. 기업 책임에 기반한 자체 재해예방활동력을 높이고 안전관리책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안전 기준이 바뀌었다. 우리 회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H.S.E 점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월 2회 주기로 각 공장별 인원 점검과 합동안전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월 1회 주기로는 H.S.E 테마점검을 비롯해 중장비 점검, 합동안전점검 등 총 3가지 항목이 있고, 일일 1회 점검도 진행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풍이나 호우 등 비상재난발생에 대비해 수시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작업 중의 잠재위험요소 및 아차사고를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개선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각 공장 별로 지정 임명하기로 했다. 각 공장 별 관리 감독 현황은 아래와 같다.

- H.S.E 담당 임원 | 서재욱 상무
- H.S.E 팀 | 김상진 차장, 이강용, 진운석 계장, 최남일 최영대 과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다대 1공장	김태호 부장	한승진 계장, 허헌 기원
다대 2,3공장	정경호 상무	권영식 과장, 이경식 팀장, 장기봉 과장, 박재용 기원
구평 공장	강보영 상무	윤용남 과장
영도 공장	이철수 이사	김태경 과장
군산 공장	김건우 부장	김덕현 과장
영암 공장	이규현 상무	표종원 차장

culture



선보가족과 함께하는 3월의 문화행사 영화 “킹스맨” 단체 관람

지난 3월 21일 광복동 롯데시네마에서 우리 회사 임직원과 가족들 15명이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를 단체 관람했다. 영화 관람은 임직원의 화합과 문화의 향기가 있는 직장 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달 열리는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날은 아내와 데이트를 겸해 영화를 관람한 김청옥 상무가 팝콘과 콜라 등 다과를 준비했다. 원래는 '순수의 시대'를 관람 예정이었지만 조기 종영으로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를 관람하게 되었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는 최근 누적 관객수 600만 돌파를 앞두고 있는 인

기 상영작으로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와 액션 장면으로 영화가 끝날때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었다.

우리 회사에서 매달 실시되는 문화 행사에 대한 참여도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직원들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다가오는 4월 26일에는 국제신문 주관하여 개최되는 2015부산 하프 마라톤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향후 더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직원들과 함께 공유해 많은 공감대를 쌓게 될 것이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 다대공장

- 본사 안정빈 (04.02) 유완중 (04.02)
- 서재욱 (04.03) 안형진 (04.04)
- 조현상 (04.07) 여인환 (04.12)
- 하은준 (04.12) 성기갑 (04.14)
- 박상연 (04.14) 허 용 (04.16)
- 황세연 (04.18) 김종석 (04.21)
- 김준호 (04.23) 김종민 (04.24)
- 오경택 (04.24) 심병섭 (04.24)
- 손정락 (04.26) 이준우 (04.27)
- 엄익상 (04.30)

☑ 구평공장

- 구평2공장 정용수 (04.01) 김언진 (04.05)
- 이태수 (04.07) 김갑진 (04.15)
- 안석영 (04.21) 제승수 (04.23)
- 김 훈 (04.26) 이용조 (04.30)
- 권태식 (04.02.16)



임사 기념일

☑ 다대공장

- 본사 이영우 (04.01) 이현우 (04.01)
- 최우호 (04.01) 이현우 (04.01)
- 조경선 (04.01) 김기주 (04.01)
- 이창면 (04.02) 박종혁 (04.02)
- 장기봉 (04.06) 임재호 (04.08)
- 김준호 (04.09) 이동준 (04.15)
- 여인환 (04.17) 정성화 (04.18)
- 정차균 (04.19) 강동주 (04.19)
- 소 터 (04.21) 장철민 (04.21)
- 박원석 (04.22) 박철현 (04.24)
- 이형백 (04.24) 심응복 (04.24)
- 김재래 (04.25) 하은준 (04.25)
- 이수원 (04.28) 임영삼 (04.30)

☑ 구평공장

- 구평2공장 이도현 (04.01) 이은석 (04.01)
- 김기주 (04.01) 조영화 (04.02)
- 김갑진 (04.26)

☑ 영도공장

- 영도공장 성창훈 (04.02) 양병철 (04.02)
- 최동욱 (04.07) 권운현 (04.23)



물운대 인근 지역 직원들이 모여 아미산 봉수대로 친목 산행 실시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28일 다대포 물운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친목도모를 위한 등산을 다녀왔다. 최금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회사가 아닌 밖에서 동네 주민끼리 한번 모이자'했던 약속이 점점 커져 토요일 아침 등산으로 이어졌다.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하여 15명 정도가 산행을 하였다. 물운대 근처 아미산 봉수대를 기점으로 가벼운 산행 코스를 선택해 부담 없이 오를 수 있어 어린 아이들도 재미있게 참가할 수 있었다.

친목도모는 물론 회사의 공동 목표,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의지와 협동심을 키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번 산행에 참석한 직원들은 "날씨가 많이 풀려서 산행하기 너무 좋습니다. 사무실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직원들과 더욱 친해진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시간되는 직원들끼리 모여서 산행 이후 점심 먹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모임 자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격려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산행을 마친 직원들은 아미산에 위치한 산장에서 회사에서 지원한 삼계탕 백숙으로 점심식사를 하며 친목도모 산행을 마무리 했다.